

Intraabdominal textiloma(gossypiboma): a case of retained surgical foreign body mimicking a mesenteric GIST or neurogenic tumor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병리과¹

*송영봉 · 이준행 · 이충현 · 최용성 · 신동현 · 강풍 · 안금환¹

Retained surgical textile foreign bodies (Textilomas or Gossypibomas) in the abdominal cavity are found between 1/1,300 and 1/1,500 laparotomies in the literature, despite precautions taken by surgeons. They cause two types of foreign body reactions in surrounding tissues, that is, chronic aseptic granulomas without significant symptoms and acute exudative lesions, such as abscess or fistula to skin or intestine, associated with pain and fever development in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Recently we experienced that a 71-year-old man who had undergone skull bone graft using left 6th and 7th rib during the Korean War went through an operation for an accidentally found intraabdominal mass mimicking a mesenteric GIST or neurogenic tumor originated from diaphragm. Herein, we report this case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Key words: Textiloma(Gossypiboma), Surgical foreign body, Granuloma, War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분변 잠혈 반응 검사의 의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 · 최명규 · 유찬란 · 남관우 · 박호성 · 서정필 · 장재혁 · 백창렬 · 박재명 · 조유경 · 이인석 · 김상우 · 정인식

배경 : 2004년부터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장암이 포함되면서 대장암 검진사업이 시작되었다. 국가 검진사업에서 분변잠혈반응검사의 수검율은 10.5%였으며 양성율은 7.9%였다. 추가 정밀검사는 57.3%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장암은 0.9%였다.**목적** :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암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분변잠혈반응검사의 의의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강남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모든 검진자의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수검자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위한 체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유소견자는 결장경 검사를 권고하였다. 대장정밀 검사를 원하는 수검자는 검진 당일 결장이중조영촬영술을 시행 받도록 하였다. **결과** : 총 수검자 10,182명 중 8,198명 (80.5%)이 분변을 제출하였다. 분변잠혈검사 양성 수검자는 149명(1.81%)이었고 연령이 많을 수록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p<0.05$). 양성 수검자 중 33명(22.1%)이 추가검사를 시행하였고 대장암 2명(6.1%), 용종 7명(21.2%), 궤실 6명(18.3%), 치질 5명(15.2%), 궤양 1명(3.0%), 정상 12명(36.4%)였다. 음성 수검자 8,049명에서는 507명(6.3%)이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대장암 3명(0.5%), 용종 102명(15.7%), 정상 388명(59.8%)이었다. 대장암과 용종의 진단율은 양성 수검자에서 음성 수검자보다 높았다 ($p<0.05$). 분변잠혈검사의 대장암에 대한 민감도는 40%, 특이도는 95.4%, 용종에 대한 민감도는 6.4%, 특이도는 95.4%였다. 대장암의 평균연령은 67세로 모두 55세 이상 이었다. 음성 수검자에서 대장암 3명 중 2명은 검진 목적의 결장이중조영촬영술로 진단되었으며, 1명은 검진 이후 증상에 대한 진료 과정 중 결장경을 통해 진단되었다. CEA 는 진단적 가치가 없었다. **결론**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분변잠혈반응검사는 대장암 선별에 유용하지만 민감도가 낮았다.